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연설의 세 번째 제안 발표: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자녀보육을 보다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만들기

새로이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는 주 전역의 200,000개가 넘는 근로 가구가 자녀보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임

60,000달러 내지 150,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2배가 넘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임

이는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국가적으로 선도하는 노력을 강화시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0,000가구 이상의 중산층이 그들의 자녀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하는 것을 돕게 될 새로운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적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안전한 고품질의 자녀보육 제공과 근로 활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가격의 고품질 자녀보육이 금전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확립하기 위한 일자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새로이 강화된 이 세금공제는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주간 보육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자리에 진입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토인 엑셀시어(Excelsior)에 따라 생활하게 해주는 보다 강력하고 더 나은 뉴욕을 확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는 현재 시행 중인 뉴욕주 자녀 및 피부양자 보육 세금공제를 보완하고, 60,000달러 내지 150,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2배 이상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전액 환급 가능한 자녀 및 피부양자 보육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2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버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연방 세금공제액의 최대 110%에 해당되는 혜택을 제공하며, 그 환급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6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액으로 연방 세금공제액의 20%를 제공합니다. 2014 과세연도의 경우, 거의 520,000개의 뉴욕 가구들이 이 세금공제로부터 거의 1억 8,9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를 때, 50,000달러 내지 150,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버는 200,000가구가 평균적으로 169달러부터 376달러까지, 그들이 받는 평균적인 혜택을 두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2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50,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구들은 이미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금공제가 중산층 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범위	기존의 주 정부 세금 평균 공제액	새로운 주 정부 세금 평균 공제액	증가액(\$)	영향을 받는 납세자
\$50,000 – \$54,999	\$518	\$605	\$87	16,465
\$55,000 – \$59,999	\$355	\$452	\$97	14,682
\$60,000 – \$64,999	\$196	\$456	\$260	13,195
\$65,000 - \$74,999	\$116	\$347	\$231	24,005
\$75,000 – \$99,999	\$113	\$340	\$227	54,375
\$100,000 – \$149,999	\$111	\$333	\$222	79,135
영향을 받는 납세자 합계				201,857

많은 가정의 경우, 자녀보육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은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뉴욕의 6세 이하 아동 중 65% 이상의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이 낮에 일하는 동안 안정적인 자녀보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녀보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 기회가 제한되면, 뉴욕의 기업체와 경제에 상당한 생산성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가정들, 특히 자녀보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취업과 발전에 대한 장애물과 씨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평생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는 주 전역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전념합니다. 강화된 중산층 자녀보육 세금공제는 자녀보육 비용으로 인해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제약받는 가정들에 대해 매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녀보육 세금공제를 확대하려는 주지사의 제안은, 작년에 입법화된 국내 최장의 가장 포괄적인 유급가족휴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어젠다를 강화합니다. 뉴욕의 유급가족휴가 프로그램은 자녀보육 세금공제 확대가 시행되는 연도와 같은 2018년에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영아를 보육하거나,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서, 또는 가족이 군 복무에 소집되는 경우에 가족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1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초,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의 자녀보육 프로그램들의 안전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6년에 채택된 새로운 법령들에서는 아동 보육 보건 및 안전 기준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 주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범칙금을 증액할 수 있는 해당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근로 가구들을 위해서 자녀보육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품질이 높고,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